광주 사회적 경제기업 세계로 뛴다

뜨레찬·더하이 등 10여곳
김치·쌀과자·마스크 등 수출
중기부에 해외마케팅 지원 요청

광주지역 사회적기업들이 세계로 뛰고 있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목적을 넘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직 10여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의 도전은 눈부시다.

2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에는 사회적기업 119개, 예비 사회적기업 32개, 사회적 협동조합 29개, 마을기업 57개, 자활기업 48개 등 총 28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애인·고령자·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탓에 전문·숙련도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늘고 있다.

김치류를 생산하는 뜨레찬, 수제 유기농 쌀과자와 단호박을 제조하는 ㈜더하이, 유아용 마스크를 만드는 ㈜휴먼퍼스트, 기능성 쿠션·실내화 등을 생산하는 다원헬스케어, 건강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현대에프엔비㈜ 등이다.

'뜨레찬'은 지난 2016년 대만과 미국에 배추김치·갓김치 수출을 시작해 지난해 호주·중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4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한국 전통 김치를 고집하며 '엄마의 손맛'을 수출 전략으로 삼았다. 김치 제조에만 4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신안에서 천일염을 구입해 2년간 간수를 빼고, 이 소금으로 멸치젓을 담가 2년을 숙성한 뒤 김치를 담그는 제조방식이다. 특히 세계김치연구소와 기술 개발을 통해 숙성 지연 기술과 가스배출포장지를 개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으로 뜨레찬은 지난 2011년 창업 당시 6명에 불과했던 직원이 현재 17명으로 늘었다. 고령자·결혼이민자 등 절반 가량이 취약계층이다. 김광호 이사는 "해외에서 만난 김치는 겉모습만 김치였지 발효식품이 아니었다"며 "엄마의 손맛, 한국의 전통 김치를 세계인들에게 맛 보여주고 싶었다"고 수출 배경을 설명했다.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현대에프엔비㈜는 건강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2년차인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분말로 된 식초 제품 600만원 어치를 중국에 첫 수출했다. 올해 4월 2차 수출에 이어 하반기에는 다른 제품 수출에 나선다. 박승만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수출 전선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영세중소기업 현실 상 수출 전문인력을 별도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며 정부·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희망했다.

이날 열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지원을 가장 바랐다.

패션소품 제조업체 S사 대표는 "해외 판로확보를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에 애로가 있다"며 "해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성인으로 자부심 갖고 미래 계획 멋지게 설계하세요" 광주은행, 성년의 날 행사

송종욱(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지난 20일 은행장실에서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만 19세)이 된 직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0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은행장실에서 성년의 날을 맞은 직원들을 초청해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으로 입행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을 축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성년이 된 직원들을 축하하며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특히 직장에서는 고객의 돈을 내 돈처럼, 고객을 내 가족처럼 응대하는 훌륭한 직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뜻깊은 성년의 날을 통해 앞으로 미래 계획을 멋지게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현대차 쏠라티 리무진 타이어 단독 공급

금호타이어가 현대자동차 미니버스에 장착하는 20인치 경상용차용 타이어 개발에 성공, 단독 공급한다.

금호타이어는 현대자동차의 미니버스 쏠라티 리무진에 20인치 규격 신차용 타이어(OE)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올해부터 쏠라티 리무진에 공급하는 타이어는 기존 '포트란 KC53'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현대차는 기존 16인치 타이어 대신 20인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타이어사에 신규 개발을 의뢰했으며, 금호타이어가 개발에 참여해 최종 성공했다.

경상용차(LCV) 타이어는 높은 하중을 견뎌야하므로 낮은 편평비를 적용하면서도 기존의 승차감과 연비를 유지하는 기술력이 요구된다.

금호타이어는 고강도 컴파운드 및 카카스를 적용해 내구성능을 강화하고 패턴 내마모 설계와 숄더부 강성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처음으로 저편평비의 20인치 LCV 규격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연봉 5000만원 받으려면 대기업 6.6년, 중기 10.5년"

사람인, 583개 기업 조사

직장인들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년 가량, 억대 연봉에 도달하기까지는 20년 넘게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5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사 이후 연봉 5000만원 달성 기간은 평균 10.3년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평균 6.6년으로 가장 짧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9.3년과 10.5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와 연봉 수준이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은 입사 5년차 이하에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비율이 44%에 달했으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6%와 8%에 그쳤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1.25 (+5.54)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2)
↑ 코스닥	703.98 (+1.90)	↓ 환율 (USD)	1194.00 (-0.20)

코스피·코스닥 세율 0.05%p 인하

30일 매매계약부터

다음 달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이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신차 프로젝트 성공시켜 경쟁력 확보하자"

기아차 광주공장 결의대회

"신차 프로젝트 성공시켜 미래 경쟁력 확보하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21일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하이클래스 소형 SUV' 생산 프로젝트 성공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신차 '하이클래스 소형 SUV'는 광주 1공장에서 생산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신차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품질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양산일정을 준수해 성공적인 데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박래석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은 물론 30여개 협력업체 대표 등도 참가했다.

박래석 공장장은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여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광주공장 도약의 새로운 시발점을 만들고자 모였다"며 "결의대회를 계기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양산일정 준수를 비롯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양산일정 준수 및 성공을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 ▲지금껏 선택해준 고객 사랑에 적기 공급 및 완벽한 품질의 차량으로 보답할 것 ▲고객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정직하게 일하고 전심전력으로 헌신할 것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2019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협심할 것 등을 다짐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는 기아차의 새로운 글로벌 소형 SUV로 혁신적이고 대범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감성가치가 응축된 '콤팩트 시그니처'를 핵심 키워드로 개발됐다. 정통 SUV 스타일을 모던한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즐겁고 편안한 주행 성능, 탁월한 공간감, 첨단 신기술 등을 집중함으로써 기존 소형 SUV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클래스 SUV 가치를 제공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